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실태와 성형중독

Plastic surgery experience and addi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김 영 아*, 정 향 인**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Kim Young A*, Cho Chung Hayng-In**
Jeju National Univ.*, Chonnam National Univ.**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실태와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무작위 표집한 여대생 223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02명(45.7%)은 최소 1회 이상의 미용성형 경험이 있었고, 비외과적인 미용성형 경험이 외과적인 미용성형 경험의 비율보다 높았다. 여대생의 성형중독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과거의 성형 경험과 성형수술 수용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평가였다.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52% (Nagelkerke R2=.52) 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현황과 성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제 여대생들에 있어 성형중독은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화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연구결과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Ⅰ. 서론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미용성형을 받는 비율이 급증하였다. 이는 통계적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국제미용성형의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1,000명당 13.5건의 미용성형이 이루어져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 부분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1]. 그러나 이 단체는 전 세계 성형외과전문의들로 구성된 단체로 일반의에 의한 미용성형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국내 미용성형이 건강보험제도 밖에서 수행되고 있어 전체 시술건수에 대한 공공기관의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미용성형이 시행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외과적인 미용성형수술 또는 비외과적인 미용성형시술의 폭발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미용성형 수술을 요구하는 환자 중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재수술을 요구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형중독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2]. 따라서 성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3].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경험 실태와 성형중독성향을 연구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대생 223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4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서술통계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21.92세로 미용성형을 경험한 학생이 102명(45.7%),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121명(54.3%)이었다. 미용성형을 경험한 학생의 평균 연령은 22.04세로 1학생이 6명, 2학년이 18명, 3학년이 29명, 4학년이 49명이었고, 가정의 월 소득은 300-499만원이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용성형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평균 연령은 21.82세로 1학년이 4명, 2학년이 32명, 3학년이 34명, 4학년이 51명이었고, 가정의 월 소득은 역시 300-499만원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1].

성형중독의 전체평균은 미용성형을 경험한 학생이 2.36점,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2.00점으로 4개 하위항목과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성형수술 수용성은 미용성형을 경험한 학생이 4.76점,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4.40점으로 하위항목 중 고려요인 1개와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전체와 하위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신체상은 하위항

목 중 외모지향성 1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자존감은 미용성형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표 1. 미용성형 경험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

변수		미용성형 경험			
		예(n=102)	아니오(n=121)	t	p
		n(%), M(SD)	n(%), M(SD)		
나이		22.04(1.47)	21.82(1.46)		
학년	1	6(2.7)	4(1.8)		
	2	18(8.1)	32(14.3)		
	3	29(13.0)	34(15.2)		
	4	49(22.0)	51(22.9)		
가정 소득	150만원미만	5(2.2)	10(4.5)		
	150-299만원	24(10.8)	39(17.5)		
	300-499만원	45(20.2)	42(18.8)		
	500만원이상	28(12.6)	30(13.5)		
성형 중독	전체평균	2.36(0.52)	2.00(0.47)	5.51	<.001
	내성의존요인	2.40(0.67)	1.58(0.62)	9.50	<.001
	생활장애요인	1.42(0.57)	1.25(0.50)	2.31	.022
	긍정적기대요인	3.71(0.64)	3.52(0.67)	2.17	.031
	병적몰입요인	1.93(0.71)	1.64(0.64)	3.17	.002
성형 수술 수용성	전체평균	4.76(1.03)	4.40(1.05)	2.56	.011
	개인내요인	5.13(0.92)	4.89(0.98)	1.83	.068
	사회적요인	4.23(1.27)	4.00(1.31)	1.33	.185
	고려요인	4.92(1.32)	4.31(1.35)	3.40	.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전체평균	3.79(0.64)	3.70(0.59)	1.13	.261
	내면화	3.63(0.83)	3.58(0.76)	0.46	.650
	인식	4.04(0.62)	3.88(0.63)	1.89	.060
신체상	전체평균	3.20(0.39)	3.16(0.38)	0.77	.442
	외모평가	2.93(0.76)	2.81(0.75)	1.11	.268
	신체만족도	2.89(0.61)	2.85(0.58)	0.54	.592
	외모지향성	3.70(0.53)	3.54(0.52)	2.31	.022
자존감		2.88(0.45)	2.82(0.45)	1.00	.319

Ⅳ. 결론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여부와 미용성형 관련변수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미용성형중독과 성형수술수용성, 신체상이 미용성형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여대생들의 미용성형 경험 비율이 45.7%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 확인된 바, 미용성형의 증가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 문제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 미용성형중독, 성형수술수용성을 조절시키고 건강한 신체상을 확립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나 교육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Internet]. Hanover NH: ISAPS, 2011.

[2] Lim, I. S.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addiction scale,"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008.

[3] Kim, Y. A. and Chung, H. I. "Factors affecting plastic surgery addiction tendency among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621-631, 2014.